

비핵화



“비문학 공부의 핵심, 그림(畵)에 있다.”

개념편

[집필진]



[검토진]

김동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단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김성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서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서범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현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오동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윤성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현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홍승민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CONTENTS

[1권] 비핵화 [개념 + 문제편] ---

PART 01 | intro : 밝게 빛나기 위해, 비핵화

PART 02 | 비핵화 사용 설명서

PART 03 | 비핵화의 시작, 비문학 공식

[2권] 비핵화 [해설편] ---

PART 03 | 비핵화의 시작, 비문학 공식

[THEME 9] 예시 지문 中

TOPIC 03 | FULL 지문 학습

↳ 인문 지문

↳ [$Q \Rightarrow A$]형 지문

↳ [$P \Rightarrow S$]형 지문

↳ 평서문으로 화제 제시되는 지문, 그런데 확실한 어투는 아닌.

PART

01

intro.

밝게 빛나기 위해,
비핵화



“수능 국어_구41생”

▪

▪

하나, 과외를 책으로 집에서

인생에 있어 수능 성적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성적에 따라 사회로 나갈 때의 출발선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수능이 가지는 무게감은 정말 엄청나다.

과열된 대한민국 입시 판에서,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고액 1:1 과외를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외는 괜찮은 선생님을 찾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나도 수험생 시절 과외를 받았고, 현재는 과외를 하고 있다. 과외와의 인연을 예전에는 학생으로,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는 나는, ‘과외 하듯이 설명해주는 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제 그 생각을 [수능 국어_구41생]의 이름을 빌려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수능 국어는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밝게 빛날 너의 미래를 위해, [수능 국어_구41생]은 수능 국어 공부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둘, about. 구41생

구41생

대학생입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기만 했던 국어

저는 국어에 있어 '타고난 재능'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텍스트만 봐도 숨이 턱 막히고,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 생각이 들며 머리가 하얘지는 국어라는 과목은, 저에게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목표로 하던 저에게 국어 점수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마주하는 답답함을 깨부수고 싶은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어지간한 인강 사이트의 조금이라도 유명한 강사님들 인강은 다 들어 봤고, 유명하다는 독학서도 이것저것 찾아서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와중에 고3 시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맞았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던 저에게 4등급이라는 점수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고등학교 들어와서 본 모든 모의고사에서 2등급 선은 유지했고, 아무리 망해도 3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3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인강, 독학서 등을 잡히는 대로 공부하다가 혼란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9월 모의고사의 등급 자체도 충격이긴 했지만, 그때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정말 머리가 아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답답함이 정말 싫었습니다.

9평 4등급, 그 후 수능까지 2개월 - '구사일생'의 심정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다.

9평 4등급, 그 후 수능까지 2개월, 수능 전날까지 공부 시간의 90%를 국어에 투자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구사일생'의 심정이었죠.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내가 지금까지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 사단이 났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진단한 문제점은 바로 '기본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문을 읽을 때는 A교재에서 나온 comment대로, 또 다른 어떤 지문을 읽을 때는 B강사의 tip대로, 그냥 그때그때 요령을 발하며 '땀땀 메우기'식으로 독해를 했던 것입니다. 기본기도 없이 스킬에만 매달리고 있었으니, 9평에서 그 업보가 터진 것이었죠.

따라서, 저는 어떤 지문이든 '일관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독해의 기본기였습니다. 특히 비문학을 읽을 때 느꼈던 그 애매모호함,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원 지문을 빅데이터처럼 다뤄, 일종의 패턴을 발견해 평가원이 글을 쓰는 방식,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방식을 정형화했습니다.

그 결과,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일 정도로 '불수능'이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백분위 99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1부터 고3까지 만년 2-3등급 ~ 시험이 쉬우면 가끔 1등급이 뽀록으로 나왔던 제가 그 2개월의 기간 동안 수능 국어에 대해 깨달은 바는 정말 크리티컬 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에 반수를 하는데 국어 공부는 진짜 거의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구사일생의 심정으로 '구41생'한 기록, "비핵화"

이때 깨달은 바를 묵혀두기는 싫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했고, 그런 바람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했습니다.

九死一生(구사일생) : 아홉 번 죽을 뻔하다가(구사) 한 번 살아난다는 뜻(일생)이다.

구41생 : 구사일생의 심정으로 **구평 4등급**이 수능 **1등급**을 맞아 입시전쟁에서 **생존**하다.

..의대에 합격하기까지, 저는 국어에서 정말 엄청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신에서든, 모의고사에서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구41생했습니다. 지금도 국어라는 과목에서 고비를 넘겨야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더 완벽해지기 위해, 또 어떤 학생은 노베이스를 탈출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비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구사'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에서 '일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능 날의 '일생'을 위해서는 '독해란 무엇인가?' 바로 '독해의 기본기'가 바로 잡혀있어야 합니다.

✓ '구41생'이라는 이름으로,

✓ '엄청난 인강, 방대한 시중 교재', 콘텐츠의 대홍수 시대인 21세기 입시에서,

✓ 인강을 들으면서도, 또는 자습서를 보면서도 절대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게 잡을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셋, 구41생의 생각

“수학 공부와 비문학 공부는 근본적인 원리가 같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이전에 나오던 유형인지 새로운 유형인지에 상관없이 항상 공식을 포함한 보편적인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푼다. 그리고 답도 1이면 1, 39면 39 이렇게 딱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수험생들은 보통 수학은 객관적이고 애매모호함이 없다고 느낀다. 그런데 국어에 있어서는 정반대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문학에 있어서는 아니다.

비문학에도 일종의 공식이 있고, 그것을 암기해 지문을 읽을 때 적용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공식’이라고 한 이유는, 평가원은 항상 비문학 지문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쓰기 때문이다.

수학에서는 공식이 보편적인 학문적 연구에서 나왔을 뿐이고, 국어에서는 공식이 ‘역대 기출에 나온 비문학 지문을 쭉 봐보니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일관적이라’ 이런 논리로 공식이 ‘경험에 기반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일 뿐이다.

차이점은 이뿐이다. 나머지는 수학을 푸는 것이나 비문학을 푸는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설명할 내용의 핵심은, “그래서 수능 비문학 지문들이 어떻게 일관적인가?” 이다. 어떻게 일관적인지 알면, 그게 바로 공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문을 소재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국어 문제 풀이를 마치 수학 공부와 같은 방식으로 객관성,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비문학 공부는 무엇일까요?”

비문학 공부의 이상과 현실은 분명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런 책을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평가원은 글을 이렇게 쓰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그럼 나는 글은 어떻게 읽고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를 0부터 100까지 모두 스스로 느끼고 정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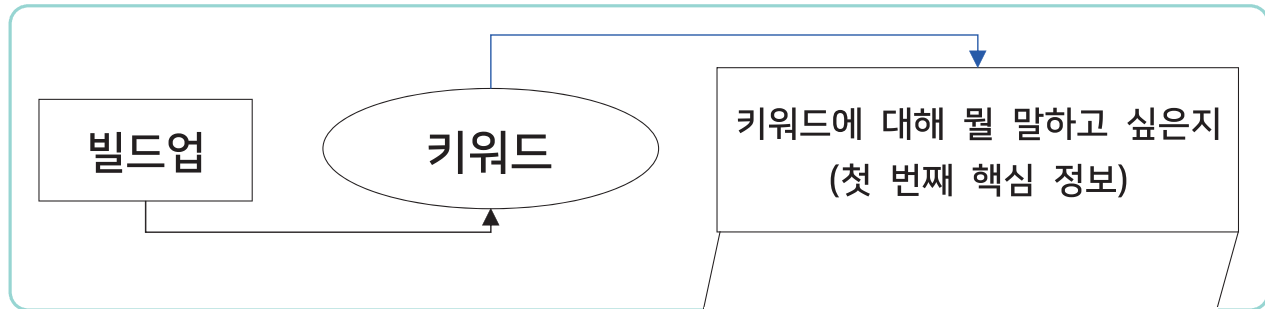
하지만, 수험생은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다른 과목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지간히 ‘재능충’ 이 아니라면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너무나도 큰 단점이 있다. ‘재능충’ 이 아닌 수험생에게 이 단점은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이상적으로 공부해서 정리해놓은 것을 배우고 체화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현실적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강을 듣거나 독학서를 사서 공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공부 시간을 줄여준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쓴 책이 바로 그 역할이다.

■ 그림으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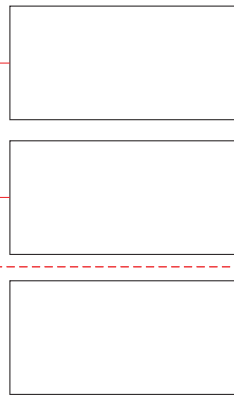
어김없이 그림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머릿속에 목차를 그린다? 아래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기억해도 좋다.

우리는 글 초반부에 이런 사고를 거쳐 글의 첫 번째 화제를 도출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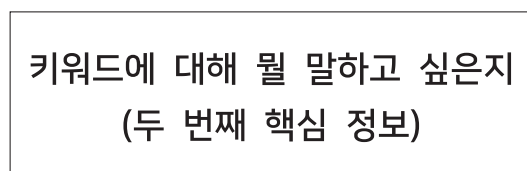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에게 문단들이 떨어진다. 읽어보니 핵심 정보를 계속 구체화한다. 그 핵심 정보 안에서 **또 세부적인 범주가 나뉘지며** 문단이 쪼개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읽다가 새로운 문단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전 핵심 정보에 대한 서술이 종결되고 새로운 핵심 정보가 등장.



다음 문단들은 또 문맥 파악을 통해 두 번째 핵심 정보에 소속시키기

이런 느낌으로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 파악을 통해 **한 핵심 정보 내에서의 목차, 지문 전체적인 목차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